



휴비스,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 1000만원 기탁

지역에 대표하는 섬유기업인 (주)휴비스 전주공장(공장장 고성우)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돋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주)휴비스 전주공장은 19일 아침밥을 끓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짖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4월에도 소외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희망도서를 지원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에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한 (주)휴비스 전주공장은 이번 기부로 지난 2015년부터 총 1억40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엄마의 밥상'과 '지혜의 반찬' 사업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비전대-희망디딤돌센터-굿네이버스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직무대행 문용규)는 19일 대회의실에서 도내 보호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희망디딤돌센터와 글로벌 아동권리 NGO 단체인 굿네이버스와의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도내 보호이동청소년의 진로·진학을 위한 인프라 및 입학과 진로의 정보 상호공유, 전주비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학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대상지의 동의를 얻어 상호공유하기로 했다. 희망디딤돌 센터는 삼성전자, 사랑의 열매, 전라북도 지자체 세 곳의 지원을 받아 보호청소년들의 자립 및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소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NGO단체로, 소외된 이웃과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지원과 구호를 위해 노력했고 2011년에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공식 파트너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주비전대학은 이날 협약을 통해 앞으로 도내 340명의 보호청소년들의 진로·진학 및 취업지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버스킹 성료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한 10월 특별 프로그램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버스킹이 지역 내 약 200여명의 청소년과 가족들이 뜨거운 열기와 응원 속에 진행됐다.

무주청소년수련관은 거리가 너무 멀어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주거단지 내에서 청소년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버스킹을 진행했다.

이날, 처음 진행된 프로그램 버스킹은 무주공원(읍내리 67-2) 이외무대에서 진행되었으며, 10월 할로윈을 맞이하여 할로윈 무드등 만들기와 팝콘 무료나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투명플라스틱 분리배출 홍보 부스로 구성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도자 워크숍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서정분)는 19일, 무주 관내 아동·청소년지도자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이태석홀에서 아동·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을 지도하는 현장에서 소진되지 않는 슬기로운 지도자 생활을 돋고 청소년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청소년지도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매년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종사자의 기본소양 및 법 정의무교육(성폭력·아동폭력·가정폭력예방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던 이 행사가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변화를 가졌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청소년지도자의 소진예방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레슬링 김경태·도형 형제 금메달 3개 합작

전북체고 전국체전서 쾌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성황리 막을 내렸다.

경북 일원에서 열린 이번 전국체전은 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일반부는 차려지지 않고 고등부 경기만 치러져 아쉬움을 남겼지만 전북 선수들은 선전을 펼쳐 금메달 18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26개 등 총 63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평가를 올렸다.

승패를 떠나 전북 대표로 대회에 출전한 401명의 모든 선수들이 주인공이지만 이 가운데 눈길을 끈 선수들이 있다. 바로 레슬링 김경태·도형 형제와 육상 단거리 2관왕에 오른 문예진 군이다.

전북체육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김경태·도형 형제가 이번 전국체전에서 일을 냈다.

금메달 사냥은 형인 김경태(3년)가 먼저 시작했다. 그레코로민형 67kg급에 출전한 김 군은 승승장구하며 결승전에 진출, 접전 끝에 최정상에 올랐다.

기세를 몰아 김 군은 자유형 70kg급에 출전해서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레코로민형과 자유형 이倫바·양형 모두를 석권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8년만이다.

동생인 김도형(1년)도 자유형 53kg급에서 풀승을 거두면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도형 군은 첫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형의 뒤를 이었고, 이들 형제는 금메달 3개를 전북



선수단에 안겼다

김경태 군은 "고등학생으로의 마지막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대학에 진학에서도 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 등을 우승한 레슬링 국가대표 류한수 선배처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형 군은 "2022년, 2023년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 전북체고, 전북 레슬링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형의 뒤를 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지도자는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학교와 전북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대한적십자 인후3동 봉사회, 이웃돕기 물품 전달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적십자봉사회(회장 신재숙)는 19일 인후3동 관내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성껏 준비한 생필품 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회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저소득 40가정에 회장지, 리면, 마스크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신재숙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환경 변화에 지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 나눔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전달

남원시보건소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가 19일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200박스(1,000만원 상당)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남원시청에서 가진 전달식에는 권오정 남원시지부장과 이환주 시장·한용재 보건소장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보건소 방역의료진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농산물 꾸러미는 NH농협금융과 구세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해 만든 가공식품으로 1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달식에서 권오정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협진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보건소 공무원분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온정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꿈드래장애인협회, LED 조명등·성금 기부

사단법인 꿈드래장애인협회(회장 하태복)는 19일 장애인 가정을 위한 LED 조명등 2000개와 농어인을 돋우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LED 조명등은 지역 내 장애인 가정 400세대에 전달되고, 성금은 농어인이 많이 이용하는 단체에 후원될 예정이다.

꿈드래장애인협회는 그동안 장애인 학동결혼식, 밝은세상 국토순례, 성금기탁 및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협회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종종장애인생산물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장관상 및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수상하고, 지난해에는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하태복 회장은 "장애인으로서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나눔을 실천

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진정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예방 상호 협력... 전북교총-에코월드, 협약 체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와 (주)에코월드(대표 이사 김태권)는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 학교 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및 유해세균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예방) 물품 보급 ▲학교 교육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기질문기 지원으로 각종 유해세균 및 바이러스에 대한 2차 감염 예방·홍보 ▲교육현장 지원사업 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기종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살균 및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탁월한 최신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학교방역 효과를 높이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권 대표이사는 "새롭게 출시한 '바이러스제로-케이'는 공기청정과 살균을 동시에 구현한 제품으로, UV-C 살균기의 약점인 공기가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정상적인 살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결했다"며 "바이러스제로-케이는 강력한 10mW의 UV-C LED가 장착된 상층부에서 1차 살균한 후 1.09mm 길이의 공기 유로가 형성된 하층부로 공기 유로를 따라 빠르게 살균 처리해 청정의 공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큰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러스제로-케이' 공기살균기는 전북대학교 인수

공통전염병 연구소에 의뢰해 테스트한 결과, 가장 살균력이 높은 275nm 파장의 UV-C LED를 적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조사거리 50mm 및 100mm 모두 1분30초 만에 99.9%가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교총에서 이기종 회장을 비롯해 오한섭 사무총장, 김소은 대리가 참석했으며, (주)에코월드 김태권 대표, 이희봉 마케팅본부장, 이치섭 기술이사, 심규석 경영기획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정은성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사회공헌활동 나서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지부장 진기영)는 지난 18일 고창군립재가복지센터, 고창재가복지센터, 책이 있는 풍경, 국립예술단 고창 등 고창면 2개 사회복지시설과 2개의 문화·예술단체에 농산물꾸러미(100세트)와 공익기금(1,500만원)을 전달했다.

진기영 지부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지역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며 "앞으로도 농협은 고창지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서 농생생명품문화 살리는데 더욱 앞장서고, 고창 군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산농협, 서울 초등생 대상 친환경 벼 수확체험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은 19일부터 7일간 서울 서대문구 주체조동학교를 비롯한 성동구 성수초, 금호초, 옥정초 등 7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논밭학교 벼수확 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산농협은 지난 5월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서울 조동학교 7곳에 덩어리를 조성해 모내기 행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벼수확 체험행사에서 그동안 학생들이 정성껏 기른 벼를 수확하고 훌태, 호롱기, 풍구 등 전통 농기구로 탈곡하고 떡메기 등의 체험을 진행한다.

텃농행사는 학교 내 농작물 재배공간을 조성해 아이들이 직접 농사체험을 하며 농업의 중요성과 생명의 고귀함, 농작물의 소중함을 배우고 느끼는 활동으로 인성교육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경북 가00016

2004-11월 23일 5(금) (일기)

(제150-312 전주시 은수-구 7-1 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서천지사
010-2333-4791
세인지사
027-9417
효자지사
010-6625-9955

종양지사 010-908-6574
인후지사 246-66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88
의정부지사 055-9223

남원지사 632-3995
김제지사